

# 안전, 미래를 이어가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 한국전산흥(주)

취재 | 최종덕 기자

1979년 “고객만족의 우수한 친환경제품” 공급이라는 이념으로 출발한 한국전산흥(주), 각종 전산용지, 지로용지, 택배운송장에 이르기까지 인쇄·제조·공급하고 고객이 제공한 소중한 데이터를 변환 출력 발송하는 전산정보 처리 분야에 있어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종업계에 있어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분야에 있어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재해 발생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이곳 한국전산흥(주)는 안전분야에 있어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올해로 무재해 무사고 8년째를 맞고 있다. 안전을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중소기업 한국전산흥(주)는 앞으로 끊임없는 개선과 투자로 무재해 무사고 기록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10년 전 사고를 딛고 무재해 한국전산흥으로 거듭 나

인쇄를 하고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받아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 우편을 관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산흥(주)는 인쇄공정에서 가장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윤전기에 의한 인쇄로 가이드 없이 윤전기를 돌려야하는 작업 특성상 협착, 말림, 절단 사고의 위험은 항상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다.

10년 전 윤전기 운전과정에서 근로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인쇄공정에서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고는 한국전산흥(주)가 안전이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무재해, 무사고 8년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점으로부터 근로자 원천봉쇄

안전덮개 없이 위험요소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인쇄기계가 작동되어야 하는 인쇄공정 특성상 한국전산흥(주)는 안전센서 등의 안전장치로 위험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모든 조작 버튼은 양수조작식이 필수이며 광전자식에 의한 센서로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 근로자의 신체 일부분도 위험점에 접근할 수 없는 철통같은 방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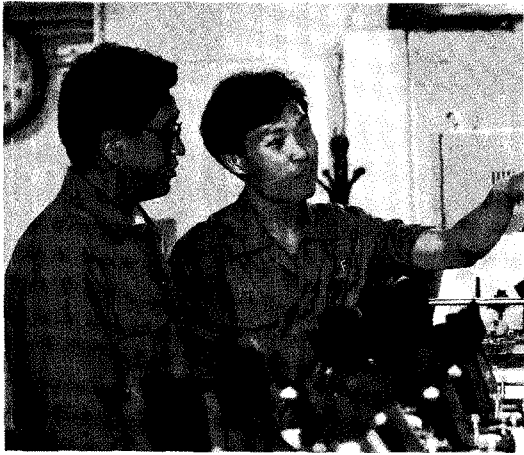
안전장치가 아무리 완벽히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법, 한국전산흥(주)는 그 기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센서와 방호장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매분기 또는 격월로 공무팀에서 시행하는 예방정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유해위험기계체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기능 유지이다. 이런 유지·보수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전산흥(주)의 안전 팀장 중심으로

한국전산흥(주)에 들어온 신규직원의 안전교육은 담당 팀장이 직접 챙긴다. 신규직원이 현장에 완벽히 적응할 때까지 원투맨 방식의 OJT 교육은 계속된다.

팀장이 챙기는 것은 신규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뿐만이 아니다. 팀원들이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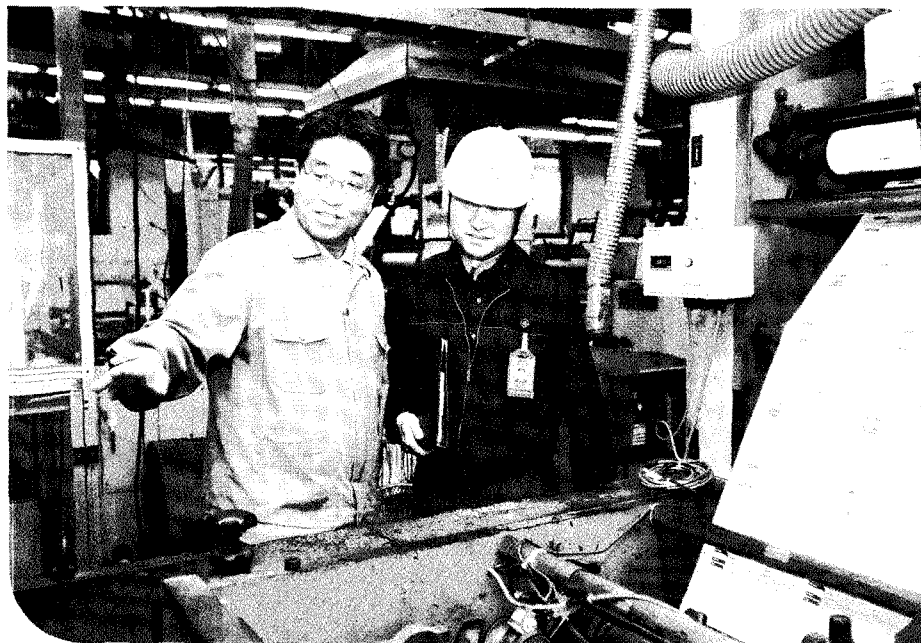
칭 가이드가 그 지침이 된다.

### 안전의 공조체제는 계속되다

한국전산흥(주)의 무재해 8년을 함께 한 기관이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회, 2004년부터 생산품질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기를 맞아하고, 안전에 있어서도 성장을 이룬 데에는 대한산업 안전협회 안전지회의 도움이 컸다고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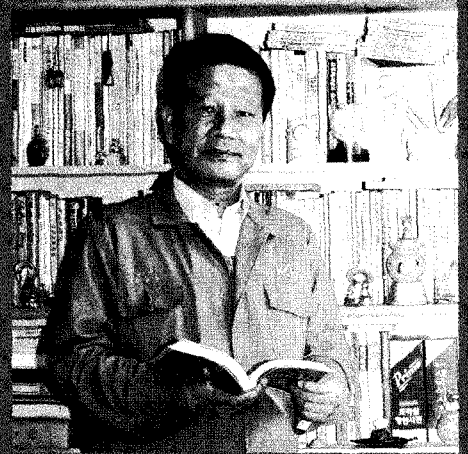
앞으로 무재해 20년을 꿈꾸는 한국전산흥(주)는 유해물질인 인쇄잉크의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공조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는 한국전산흥(주)는 내일도 모래도 앞으로 20년을 계속 유관기관과의 안전 공조체제를 이루며 안전한 한국전산흥(주)를 이끌어 갈 것이다. ☺



직업현장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현장 책임자인 이현종 상무이사까지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또한 팀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작업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스트레칭은 휴게실에서 이뤄지는데 휴게실에 부착된 스트레



잘못을 감싸주어 제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믿음 있는 상사, 저 사람을 믿고 직장에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신뢰받는 상사...

바로 이 사람이 한국전산흥(주)의 이현종 상무이사이다.

안전은 내 자신이 안전한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소 직원들이 지켜워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직원들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박스에 물젖기라고나 할까요? 종이 박스가 조금 물이 젖었을 때는 종이 박스는 그 뽕뽕함이 유지되는데, 점차 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 뽕뽕함이 부드러운 종이로 성질을 바꾸게 됩니다.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안전교육은 직원들의 성향을 바꾸고 안전의식도 자리 잡게 합니다.

저희 회사가 무재해 8년과 Loss율 8%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꾸준한 안전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솔선수범자세입니다.

현장을 나서는 전 정리정돈을 잘하라, 지저분한 것을 치워라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저 스스로 물건을 치우는 등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꾸중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절대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꾸중을 하게 되면 도출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읊지로 숨겨 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온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한국전산흥(주)는 앞으로 무재해 10년, 20년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